 보건복지부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0. 3. 19.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성 창 현 윤 민 수	전 화	044-202-3803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679 044-200-229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 장 담 당 자	신 현 두 윤 동 빈	전 화	044-202-2473 044-202-2474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양 동 교 김 성 겹	전 화	044-202-3730 044-202-3735
중앙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유 보 영 박 지 혜	전 화	044-202-3530 044-202-369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 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 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에서의 위험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입국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1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광역시로부터 한사랑요양병원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대구광역시는 한사랑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사항, 사회복지 생활시설·요양병원 감염예방 조치 및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세 진입을 위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시행했던 요양병원 전수 현장점검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전체 요양병원의 종사자·간병인·입원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 지역은 3월 13일부터 지역 내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 환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 지역은 우선 표본을 선정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두 차례 전국 요양병원 전수 점검을 실시(2.17.~18., 3.9.~13.)한 바 있으며, 병원·종사자·환자별 상세 준수 사항을 안내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해 왔다.

- 매주 전체 요양병원의 자체 점검표 제출을 통해 종사자 발열, 기침 여부 점검, 면회 제한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요양병원 원인불명 폐렴환자 457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3.9~3.13.)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검사 실시자 전원(277명*) 음성으로 나타났다.
 - * 검사 미실시자(180명) : 사망(24명), 퇴원·전원(8명), 치료 완료(38명), 주치의가 검사 불필요 판단(세균성·흡인성 폐렴 등 원인판명자 110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요양병원 진단검사를 계기로 조기에 요양병원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3 특별입국절차 전면 시행

- 정부는 3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 그간 코로나19 발생 국가별 위험도 등에 따라 특별입국 적용 대상 국가를 순차 확대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 (입국일 기준) (3. 13.) 1명, (3. 14.) 3명, (3. 15.) 2명, (3. 16.) 1명, (3. 17.) 9명
 -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첫날인 오늘은 인천공항에 새벽 1시 베이징 발(發) 항공기(25명)를 시작으로 71편의 항공기의 6,329명의 승객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다.

-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검역관, 군의관 등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등 총 64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총 117명의 검역 지원인력을 배치하였다.
- 아울러 기존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50인 규모) 외에 영종도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훈련원(70인 규모)을 임시격리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의료인력 배치와 유증상자 이송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 * 의료인력 3명, 행정지원 등 18명 배치, 유증상자 및 확진자 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 인력 12명, 차량 4대 배치 완료
- 또한, 현장에서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지원도 확대하였다.
- 정부는 해외로부터 위험 요인이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감시체계 적용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정부는 유럽 등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콜센터와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4 이란 재외국민 귀국 시 방역·의료 지원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과 이에 따른 방역 대책과 의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 3월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3월 18일에 두바이 알막툼공항에 도착한 우리나라 임시항공편(아시아나항공, B777)은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 총 80명을 태우고 오늘 16시 30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되었으며, 탑승한 이란 교민 등은 이란항공을 통해 두바이로 이동하여 임시항공편에 탑승하였다.
- 이란 교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임시항공편 탑승 전에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진행한다.
 - 임시항공편 탑승 전 기침, 호흡기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내에서 좌석 분리를 철저히 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고, 국내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 특히,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모든 이란 교민 등은 특별입국 절차에 준하여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받게 된다.
-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 센터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 한편, 검역 결과 무증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성남시 코이카(KOICA) 연수센터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 이란 교민 등의 의료 지원 및 방역을 위해 시설 내 의료진 파견, 소독 등이 이루어지며 교민과 지원인력을 위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가 지급된다.
-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되며, 그 외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귀가 후 14일 간 자가 격리 조치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입국하는 이란 교민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란 귀국 국민의 이송 및 보호와 관련하여 입국 국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 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4.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5.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10.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1.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오늘 기재부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후 씬머리.

1. 현재 치료약 없음. 환자는 산소를 불어넣는 치료를 하는데 폐기능이 약한사람은 방법이 없이 방치.
2. 치료가 되어도 일반 폐렴보다 폐손상이 많아서 폐활량 손실이 엄청크다.
3. 백신은 4월경이 되어야 나올것임.
4. 이 바이러스는 직바로 폐를 손상시킴.
5. 금년 4월까지 하나투어.모두 투어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사는 모두 부도. 해서 정부에 인건비 50% 보조 요청.
6. 이번달 제주 여행취소 98%.
7. 메르스는 일정지역 여행만 자체가 되어 전세계 관광에 부분적 영향. 이번것은 전세계 대상.
8. 우리나라는 4월이 peak 가 될것임.

요점은 절대 걸리지 말것. 치료되어도 완치가 아니고 폐손상이 너무 심각.

오후 1:39

▲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 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美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법(RT-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4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주의 안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 대유행(pandemic)에 따라 입국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입국 후 주의사항 >

- 귀가시 마스크 착용, 주변인과의 접촉 피하기
- 입국 후 14일간 다음사항 권고
 - 외출 자제, 특히 다중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 방문 금지
 - 집에서는 가족과 밀접 접촉 최소화(2m 거리 유지)
 -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 관찰하기
 - *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지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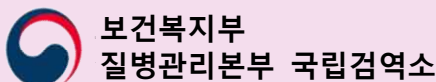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 금지
-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 및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 *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으로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주의 안내

< 주요 증상 >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 개인 위생수칙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 안내 >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을 설치하기
-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하기
- *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우선으로 확인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